

인천시립극단 Incheon City Theatre Company

프로필 작성

인천시립극단은 199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창단된 공립극단으로서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모범이 될 수 있는 레퍼토리를 개발하고, 인천 지역의 문화를 반영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있다.

인천시립극단은 인천 시민 모두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극장의 문턱을 낮추고, 저소득층 할인혜택이나 접근하기 어려운 관객을 직접 찾아가는 공연을 하고 있다. 문화적으로 가장 소외된 청소년 연극을 개발하고 있다.

인천시립극단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하는 연극 만들기'와 같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인천시립극단은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에 삶의 중심을 세우는 공립극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

○ 2017년 공연실적

(단위 : 건, 회, 명)

구 분	계	정기공연	기획공연	청소년대상 공연	찾아가는 예술활동	해외공연	상설무대	기 타
공연건수	30	3	1	-	22	-	2	2
공연횟수	59	30	3	-	22	-	2	2
관람인원	13,934	5,795	749	-	5,190	-	600	1,600

※ 공연현황 총괄

일시/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계	30건 / 59회			13,934명
2017. 2. 6(월) 용현중학교	찾아가는 공연 “알,비장전”	예술감독 : 강량원 연출 : 이완희 *출연진* 김세경 최진영 정순미 김희원 황혜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 *스텝* 무대 : 박재범 음향 : 김현산 분장 : 손진숙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	흥겨운 음악과 함께 고수의 사설과 알비장의 거들먹거림으로 극은 시작된다. 신관 사또 제주 부임길에 예방 직위를 맡은 알비장 일행, 강화로 향한다. 무사히 도착한 알비장 일행, 강화 경치를 즐기며 관객과의 너스레가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알비장과 방자의 여색의 유혹에 대한 내기가 시작된다. 고고한 척 하는 알비장과 그를 함정에 빠트리려하는 사또, 방자, 애랑의 어울림은 강화도 화류로 이어진다. 계곡에서 목욕하는 애랑, 혼자 떨어져 무료함 속에 있던 비장. 목욕 장면을 목격하면서 극의 주 흐름은 방자 쪽으로 넘어온다. 알비장은 방자에게 자신의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상하 계급 사회에 대한 엇갈린 해석의 다툼이 벌어지고 결국엔 관객과의 사설로 이어진다. 결국 100냥이란 거금을 방자한테 넘기면서까지 여자를 소개받으려는 비장의 행위에 다시 관객과의 사설로 넘어가며 현 시점에서의 비리와 물질 만능의 사고에 빠져있는 이들을 재 잡고 넘어간다. 방자의 놀음에 온갖 수모를 겪으며 가게 되는 애랑의 집. 하룻밤의 사랑으로 이빨까지 빠주고 방자의 등장으로 궤 속에 갇히게 되는 알비장. 궤 속에서 툽질을 당하는 위기를 겪으며 결국은 바다에 던져질 처지에 놓이게 된다. 바다가 아닌 동헌 마당에 던져진 알비장, 밀리서 들려오는 뱃노래에 자신이 들어 있는 궤가 바다에 던져졌다고 착각하여 목숨이나마 구하려는 알비장의 처절한 뉘우침이 나온다. 주위 사람의 도움으로 궤 밖으로 나와 해엄을 치는 알비장. 바다가 아닌 땅위에서의 개해엄을 보며 박장대소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눈치 채고 참회의 다짐을 한다. 새롭게 태어난 알비장을 축하하며 방자의 노랫가락으로 이 극은 마무리가 된다.	100명
2017. 2. 7(화) 영흥중고등학교			100명	
2017. 2. 8(수) 광성고등학교			450명	
2017. 2. 9(목) 간재울중학교			200명	
2017. 2. 13(월) 용현중학교			200명	
2017. 2. 14(화) 영흥중고등학교			150명	
2017. 2. 15(수) 광성고등학교			300명	
2017. 2. 16(목) 간재울중학교			300명	

일시/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p>2017. 4. 7 ~ 4. 16 소공연장 (10회)</p>	<p>제73회 정기공연 “열하일기만보”</p>	<p>작 : 배삼식 연출 : 강량원</p> <p>*출연진*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김현준 강성숙 최진영 정순미 김문정 김태범 김태훈 송예은 이수정 서창희 황혜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p> <p>*스텝* 무대 : 임일진 조명 : 최보윤 음악 : 장영규 음향감독 : 이복행 노래지도 : 안이호 안무 : 금배섭 의상 : 강기정 분장 : 장경숙 헤어협찬 : 윤인자 사진 : 유재형 홍보디자인 : 장소은 드라마터그 : 전강희 무대감독 : 최성국 훈련장 : 이완희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 객원홍보 : 조영민</p>	<p>조선의 천재 박지원이 쓴 여행기</p> <p><열하일기>는 조선이 낳은 천재 박지원이 쓴 여행기이다. 한성에서 압록강을 건너 베이징 그리고 열하까지 총 3000리길 장장 6개월여에 걸친 여행 기록인 <열하일기>는 보통의 여행기와 다르다. 그저 이국적인 풍경을 이방인의 눈으로 기록하는 대신 새로운 삶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전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바꾸는 계기로 여행을 제안하는 진정한 여행자로서의 기록이기 때문이다.</p> <p><열하일기>가 연극 <열하일기만보>로 다시 태어나다. <열하일기만보>는 2007년 공연되어 대산문학상, 동아연극상 등 많은 상을 휩쓸었다. 박지원이 여행할 때 타고 다녔던 말(馬)로 환생한다는 기상천외한 내용을 담은 이 연극은 꼼짝달싹 못하고 삶의 굴레에 묶여있는 인생에 대한 혹은 우리 사회에 대한 은유인 ‘열하’에서 달아나는 방법을 경쾌하고 유머러스하게 제안하고 있다.</p> <p>20명의 배우들이 펼치는 서커스와도 같은 연극 이 연극은 기상천외한 소동이 끝없이 펼쳐진다. 말(馬)이 갑자기 말(言)을 하고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사막을 줄에 몸을 의지하여 매달릴 땐 춤을 추는 것 같다. 낙타가 염불을 하는가하면 호랑이가 포효한다. 소동을 막으려고 더 큰 소동을 일으킬 때 연극은 마치 버라이어티 쇼처럼 배우들의 연기로 뜨겁다. 배우들이 신체로 표현하는 화려한 스펙타클! 관객은 어느새 박지원이 감탄에 마지않던 도시, 온갖 세상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열하’로 안내될 것이다.</p>	<p>2,537명</p>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p>2017. 4. 28(금) 야외공연장</p>	<p>금요상설공연 “알,비장전”</p>	<p>예술감독 : 강량원 연출 : 이완희</p> <p>*출연진* 김세경 최진영 정순미 김희원 황혜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p> <p>*스텝* 무대 : 박재범 음향 : 김현산 분장 : 손진숙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p>	<p>흥겨운 음악과 함께 고수의 사설과 알비장의 거들먹거림으로 극은 시작된다.</p> <p>신관 사또 제주 부임길에 예방 직위를 맡은 알비장 일행, 강화로 향한다.</p> <p>무사히 도착한 알비장 일행, 강화 경치를 즐기며 관객과의 너스레가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알비장과 방자의 여색의 유혹에 대한 내기가 시작된다.</p> <p>고고한 척 하는 알비장과 그를 함정에 빠트리려하는 사또, 방자, 애랑의 어울림은 강화도 화류로 이어진다.</p> <p>계곡에서 목욕하는 애랑, 혼자 떨어져 무료함 속에 있던 비장. 목욕 장면을 목격하면서 극의 주 흐름은 방자 쪽으로 넘어온다.</p> <p>알비장은 방자에게 자신의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상하 계급 사회에 대한 엇갈린 해석의 다툼이 벌어지고 결국엔 관객과의 사설로 이어진다.</p> <p>결국 100냥이란 거금을 방자한테 넘기면서까지 여자를 소개받으려는 비장의 행위에 다시 관객과의 사설로 넘어가며 현 시점에서의 비리와 물질 만능의 사고에 빠져있는 이들을 재 잡고 넘어간다.</p> <p>방자의 놀음에 온갖 수모를 겪으며 가게 되는 애랑의 집.</p> <p>하룻밤의 사랑으로 이빨까지 빼주고 방자의 등장으로 궤 속에 갇히게 되는 알비장.</p> <p>궤 속에서 툽질을 당하는 위기를 겪으며 결국은 바다에 던져질 처지에 놓이게 된다.</p> <p>바다가 아닌 동헌 마당에 던져진 알비장, 멀리서 들려오는 뱃노래에 자신이 들어 있는 궤가 바다에 던져졌다고 착각하여 목숨이나마 구하려는 알비장의 처절한 뉘우침이 나온다.</p> <p>주위 사람의 도움으로 궤 밖으로 나와 해엄을 치는 알비장.</p> <p>바다가 아닌 땅위에서의 개해엄을 보며 박장대소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눈치 채고 참회의 다짐을 한다.</p> <p>새롭게 태어난 알비장을 축하하며 방자의 노랫가락으로 이 극은 마무리가 된다.</p>	<p>300명</p>

일시/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p>2017. 5. 12(금) 동구노인문화센터</p>	<p>초청공연 “알,비장전”</p>	<p>예술감독 : 강량원 연출 : 이완희</p> <p>*출연진* 김세경 최진영 정순미 김희원 황혜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p> <p>*스텝* 무대 : 박재범 음향 : 김현산 분장 : 손진숙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p>	<p>흥겨운 음악과 함께 고수의 사설과 알비장의 거들먹거림으로 극은 시작된다.</p> <p>신관 사또 제주 부임길에 예방 직위를 맡은 알비장 일행, 강화로 향한다.</p> <p>무사히 도착한 알비장 일행, 강화 경치를 즐기며 관객과의 너스레가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알비장과 방자의 여색의 유혹에 대한 내기가 시작된다.</p> <p>고고한 척 하는 알비장과 그를 함정에 빠트리려하는 사또, 방자, 애랑의 어울림은 강화도 화류로 이어진다.</p> <p>계곡에서 목욕하는 애랑, 혼자 떨어져 무료함 속에 있던 비장. 목욕 장면을 목격하면서 극의 주 흐름은 방자 쪽으로 넘어온다.</p> <p>알비장은 방자에게 자신의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상하 계급 사회에 대한 엇갈린 해석의 다툼이 벌어지고 결국엔 관객과의 사설로 이어진다.</p> <p>결국 100냥이란 거금을 방자한테 넘기면서까지 여자를 소개받으려는 비장의 행위에 다시 관객과의 사설로 넘어가며 현 시점에서의 비리와 물질 만능의 사고에 빠져있는 이들을 재 잡고 넘어간다.</p> <p>방자의 놀음에 온갖 수모를 겪으며 가게 되는 애랑의 집.</p> <p>하룻밤의 사랑으로 이빨까지 빼주고 방자의 등장으로 궤 속에 갇히게 되는 알비장.</p> <p>궤 속에서 툭질을 당하는 위기를 겪으며 결국은 바다에 던져질 처지에 놓이게 된다.</p> <p>바다가 아닌 동헌 마당에 던져진 알비장, 멀리서 들려오는 뱃노래에 자신이 들어 있는 궤가 바다에 던져졌다고 착각하여 목숨이나마 구하려는 알비장의 치절한 뉘우침이 나온다.</p> <p>주위 사람의 도움으로 궤 밖으로 나와 해엄을 치는 알비장.</p> <p>바다가 아닌 땅위에서의 개해엄을 보며 박장대소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눈치 채고 참회의 다짐을 한다.</p> <p>새롭게 태어난 알비장을 축하하며 방자의 노랫가락으로 이 극은 마무리가 된다.</p>	<p>600명</p>

일자/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2017. 6. 12(월) 논현고등학교	찾아가는 공연 "유랑극단"	예술감독 : 강량원 연출 : 이완희 *출연진*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최진영 정순미 김태범 김태훈 황혜원 *스텝* 무대 : 박재범 음향 : 김현산 분장 : 손진숙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	유랑극단은 설명역을 맡은 해설자가 나와 이 무대에서 연극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올라오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올라온 사람들을 즉석캐스팅을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극이 시작된다.	600명
2017. 6. 13(화) 송도효드림복지센터			극의 시작은 일제 강점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단장역을 맡은 이세상이 단원들은 모으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50명
2017. 6. 14(수) 초은고등학교			단원들이 모여서 연극을 하다가 일본의 황포에 의해 공연은 막을 내리게 되고 여관에서조차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 유랑을 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던 중 현대극장의 차사장을 만나게 되고,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차사장에게 연극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계약을 맺는다.	800명
2017. 6. 15(목) 정석항공과학고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으로 호황을 누릴 때 작가인 오소공은 단장에게 개혁적인 연극을 하자고 제안하게 되고, 단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올리게 된다.	700명
2017. 6. 19(월) 중구노인복지관			하지만 민족의 사상과 독립을 주제로 한 작품은 일본 형사에 의해 중단이 되며 단장은 구속되고 작품의 작가인 오소공은 모진 고문 받고 풀려 나오게 된다.	200명
2017. 6. 20(화) 포병연대			단장이 빠진 극단은 해체될 위기에 처하지만 부단장을 임시 단장으로 추대하며 극단을 유지해 간다.	400명
2017. 6. 21(수) 북도면사무소			그러나 중심을 잃은 극단은 서로간의 갈등으로 다툼이 잦아지고 관객들 비위나 맞추는 삼류 연극에 의존하며 하루하루 끼니 때우기 급급한 생활을 하게 된다.	50명
2017. 6. 22(목) YWCA 재가복지센터			그러던 중 농악대의 소리를 듣고 오소공은 민속놀이에 우리의 사상과 민족정신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민속 가면극을 만들게 된다. 일본의 검열을 피한 작품은 대성공을 거둔다. 하지만 고문의 후유증으로 몸이 쇠약해진 오소공은 결국 쓰러지게 되고 단원들의 아리랑 노래를 들으며 죽음을 맞이한다.	50명
2017. 6. 23(금) 해군223전진기지			마지막으로 설명역은 극에 참여한 사람들의 각자의 소감을 들으며 극은 끝이 난다.	100명

일자/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2017. 6. 26(월) 남구노인문화센터	찾아가는 공연 “유랑극단”	<p>예술감독 : 강량원 연출 : 이완희</p> <p>*출연진*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최진영 정순미 김태범 김태훈 황혜원</p> <p>*스텝* 무대 : 박재범 음향 : 김현산 분장 : 손진숙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p>	<p>유랑극단은 설명역을 맡은 해설자가 나와 이 무대에서 연극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올라오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p> <p>올라온 사람들을 즉석캐스팅을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극이 시작된다.</p>	80명
2017. 6. 27(화) 동구노인문화센터			<p>극의 시작은 일제 강점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단장역을 맡은 이세상이 단원들은 모으는 데서부터 시작된다.</p> <p>단원들이 모여서 연극을 하다가 일본의 횡포에 의해 공연은 막을 내리게 되고 여관에서조차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p>	60명
2017. 6. 28(수) 제17보병사단			<p>유랑을 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던 중 현대극장의 차사장을 만나게 되고,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차사장에게 연극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계약을 맺는다.</p> <p>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으로 호황을 누릴 때 작가인 오소공은 단장에게 개혁적인 연극을 하자고 제안하게 되고, 단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올리게 된다.</p>	100명
2017. 6. 29(목) 강화군장애인복지관			<p>하지만 민족의 사상과 독립을 주제로 한 작품은 일본 형사에 의해 중단이 되며 단장은 구속되고 작품의 작가인 오소공은 모진 고문 받고 풀려 나오게 된다.</p> <p>단장이 빠진 극단은 해체될 위기에 처하지만 부단장을 임시 단장으로 추대하며 극단을 유지해 간다.</p>	100명
2017. 6. 30(금) 자월면사무소			<p>그러나 중심을 잃은 극단은 서로간의 갈등으로 다툼이 잦아지고 관객들 비위나 맞추는 삼류 연극에 의존하며 하루하루 끼니 때우기 급급한 생활을 하게 된다.</p> <p>그러던 중 농악대의 소리를 듣고 오소공은 민속놀이에 우리의 사상과 민족정신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민속 가면극을 만들게 된다. 일본의 검열을 피한 작품은 대성공을 거둔다. 하지만 고문의 후유증으로 몸이 쇠약해진 오소공은 결국 쓰러지게 되고 단원들의 아리랑 노래를 들으며 죽음을 맞이한다.</p> <p>마지막으로 설명역은 극에 참여한 사람들의 각자의 소감을 들으며 극은 끝이 난다.</p>	100명

일시/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p>2017. 6.30 ~ 7.2 소공연장 (3회)</p>	<p>기획공연 “배우열전”</p>	<p>예술감독 : 강량원 음악 : 이봉열 분장 : 황지원 음향 : 이복행 조명 : 이나구 미술작품 : 황지원, 용유빈, 송수민 훈련장 : 이완희 단무장 : 김화산 무대감독 : 손경희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p> <p><프라메이드> *출연진* 권순정 이규호</p> <p>*스텝* 작 : 송경화 연출 : 김현준</p> <p><10분연극릴레이> *출연진* 김문정, 이수정, 서창희, 김희원</p> <p>*스텝* 작 : 박지연<틈>, 배경령<물고기노인>, 한관희<의자> 연출 : 강성숙 연주 : 밴드‘미인’</p> <p><지하철희망역> *출연진* 이범우 강주희 송예은 이신애</p> <p>*스텝* 작 : 김이경 연출·각색 : 서국현</p>	<p><프라메이드> 2015년 서울신문 신춘문에 희곡 당선작인 이 작품은 작,연출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송경화씨 작품으로, 꿈과 희망도 없는 현 시대에 사는,,,,, 소모품으로 전락한 청년들의 모습을 실감나게 보여준다. 인간성을 마모시키는 현실을 너무 어둡지 않게 위트 있게 그리고 있다.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를 일깨우려는 로봇의 끈질긴 시도가 여러 겹의 생각을 낳게 한다. 동시대의 풍경을 압축적인 드라마로 형성한 작품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잃은 이 시대에 인간이 아닌 로봇을 통해서나마 위안을 받게된다.</p> <p><10분연극릴레이> 10분 연극 릴레이는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작품인 <틈>의 등장인물은 바퀴 두 마리이다. 나무에서 살던 야생 바퀴가 어느날 어느 집 창틀에 기어 오르다가 신을 죽이려는 집주인 여자를 피해 좁은 틈 사이에 몸을 숨긴다. 그때 그곳에 먼저 숨어있던 집 바퀴와 마주하게 되고 서로 살기 위해 사력을 다해 몸부림 친다. <의자>는 다양한 계층의 네 명의 사람이 의자 놀이를 가볍게 시작한다. 누군가 재미를 위해 잔인한 벌칙을 제안하고 장난인줄만 알았던 그들의 게임은 점 점 살벌한 현실이 되어가며 그것에 붙잡히게 된다. <물고기 노인>은 어느 날 노인들이 물고기로 변해가는 이야기이다. 젊은 사람들은 물고기로 변한 노인들을 점점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진짜 물고기로 대하게 된다. 부인은 남편에게 물고기를 팔아버리자고 설득하기 시작한다.</p>	<p>749명</p>

<지하철희망역>

희망역 2번 출구에는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간다. 이 연극은 지하철 출구에 카메라를 세우고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포착하고 있다. 그 안에는 노점상 할머니도 있고 셀러리맨도 취업준비생도 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도 있고 노숙자도 열성적으로 신앙을 전도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인다.

좀 더 카메라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저마다의 불행이 모습을 드러낸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와 어떤 희망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현재가 만들어내는 어두운 그들이 지하철 전체를 잠식해있다. 그러나 그 어둠속에서도 사람들은 타인에게 손을 내밀고 따뜻한 관심을 내보인다. 그것이 조금씩 모아져서 결국에는 살만한 세상을 만든다. 여기는 희망역인 것이다.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p>2017. 7. 19(수) 경주예술의전당</p>	<p>초청공연 “열하일기만보”</p>	<p>작 : 배삼식 연출 : 강량원</p> <p>*출연진*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김현준 강성숙 최진영 정순미 김문정 김태범 김태훈 송예은 이수정 서창희 황혜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p> <p>*스텝* 무대디자인 : 임일진 조명디자인 : 최보운 음악 : 장영규 음향감독 : 이복행 분장디자인 : 장경숙 의상디자인 : 강기정 안무 : 금배섭 사진 : 유재형 홍보디자인 : 장소은 드라마트루기 : 전강희 훈련장 : 이완희 단무장 : 김화산 조연출 : 손경희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 객원홍보 : 박선영</p>	<p>조선의 천재 박지원이 쓴 여행기 <열하일기> <열하일기>는 조선이 낳은 천재 박지원이 쓴 여행기이다. 한성에서 압록강을 건너 베이징 그리고 열하까지 총 3000리길 장장 6개월여에 걸친 여행 기록인 <열하일기>는 보통의 여행기와 다르다. 그저 이국적인 풍경을 이방인의 눈으로 기록하는 대신 새로운 삶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전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바꾸는 계기로 여행을 제안하는 진정한 여행자로서의 기록이기 때문이다.</p> <p><열하일기>가 연극 <열하일기만보>로 다시 태어나다. <열하일기만보>는 2007년 공연되어 대산문학상, 동아연극상 등 많은 상을 휩쓸었다. 박지원이 여행할 때 타고 다녔던 말(馬)로 환생한다는 기상천외한 내용을 담은 이 연극은 꼼짝달싹 못하고 삶의 굴레에 묶여있는 인생에 대한 혹은 우리 사회에 대한 은유인 ‘열하’에서 달아나는 방법을 경쾌하고 유머러스하게 제안하고 있다.</p> <p>20명의 배우들이 펼치는 서커스와도 같은 연극 이 연극은 기상천외한 소동이 끊없이 펼쳐진다. 말(馬)이 갑자기 말(言)을 하고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사막을 줄에 몸을 의지하여 매달릴 땐 춤을 추는 것 같다. 낙타가 염불을 하는가하면 호랑이가 포효한다. 소동을 막으려고 더 큰 소동을 일으킬 때 연극은 마치 버라이어티 쇼처럼 배우들의 연기로 뜨겁다. 배우들이 신체로 표현하는 화려한 스펙타클! 관객은 어느새 박지원이 감탄에 마지않던 도시, 온갖 세상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열하’로 안내될 것이다.</p>	<p>1,000명</p>

일시/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p>2017. 9. 8 ~ 9. 17 소공연장 (12회)</p>	<p>제74회 정기공연 “청소년연극페스티벌”</p>	<p>청소년연극페스티벌</p> <p>예술감독 : 강량원 드라마터그 : 전강희 의상디자인 : 김우성 분장 : 장경숙 홍보디자인 : 장소은 사진 : 유재형 영상 : 심풍식 음향감독 : 이복행 훈련장 : 이완희 단무장 : 김화산 기술감독 : 손경희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p> <p>하프라인 *출연진*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최진영 정순미 김태훈 이수정 서창희 황혜원 권순정 김희원</p> <p>*스텝* 원작 : 김경해 각색 : 홍세영 연출 : 권영호 무대디자인 : 안배잇먼 조명디자인 : 윤해인 조연출 : 배명한 무대감독 : 서가영 음악감독 : 이승호 랩 지도 : 채군 협력청소년 : 김도현(고양예고 2학년)</p> <p>웃음의 고등학교 *출연진* 강주희 김현준 강성숙 김태범 이규호 이신애 (객원출연)신용우</p> <p>*스텝* 원작 : 정진새 연출 : 이연주 무대 : 신승렬 조명 : 남경식 영상·사운드 : 목소 조연출 : 이효진</p>	<p>인천시립극단(예술감독 강량원)이 올 가을 축제를 연다. 문화예술회 관이 남동구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적인 극장 이상의 장소가 되기 위해서, 혹은 인천만의 흔적 을 지닌 장소가 되기 위해서 시민 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고 시작하는 축제다. 극장의 문턱을 낮추는 축제가 되고 자 한다.</p> <p>축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로 ‘청 소년’과 ‘극장 밖’을 꼽았다.</p> <p>청소년극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극장 이라면 한 번쯤은 도전해보는 장르 다.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해나가 고 있는 30,40대 예술가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최근 청소년극은 성장 의 범위를 계급, 젠더 문제로 까지 확장시키며 일반적인 연극이 담아 내지 못하는 세상의 미묘한 차이를 포착해내고 있다.</p> <p>인천시립극단은 극단이 가장 잘 표 현할 수 있는 청소년극을 무대에 올리고자 한다. 정진새 작, 이연주 연출의 <웃음의 고등학교>를 통해 서 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는 청소년 극에 도전한다. 또한 인천 시민인 김경해 작가의 청소년축구소설 <하 프라인>을 통해서 경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한다.</p>	<p>1,848명</p>

		<p>터무니있는연극X인천 친 *출연진* 송예은</p> <p>(객원출연) 고흥진 권근영 서현민 전민호 홍혜진 강한나 구분준 고일도 최명현 배선희 이지수 박주영 이은 홍민기</p> <p>*스텝* <앤드씨어터> 구성·연출 : 전윤환 조연출 : 서현민 <댄스컴퍼니 명> <래빗홀씨어터> 연출 : 윤혜숙 인형제작 : 김다정 <프로젝트 공사중> 연출 : 조민정</p> <p>햄릿 보여준다 *출연진* 서국현</p> <p>(객원출연) 이현배 신윤지 조장호</p> <p>*스텝* 연출·재구성 : 채군 음악감독 : 이준용 작곡·베이스기타연주 : 손형식 무대디자인 : 신승렬 조명디자인 : 남경식 조연출 : 최윤영</p> <p>보이지않는도시 *출연진* 김문정</p> <p>(객원출연) 길덕호 김성환 오선아</p> <p>*스텝* 연출 : 유영봉 움직임연출 : 유진우 드라마터그 : 김지희 김서진 미술 : 이지영 음악 : 이나경 사진·영상 : 김종철</p>	<p>극장 밖 공간이 무대가 되는 공연도 올라간다.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활동 무대를 넓혀나가고 있는 젊은 극단 세 개가 전윤환 연출가를 중심으로 뭉쳤다. ‘앤드씨어터’, ‘댄스컴퍼니 명’, ‘래빗홀씨어터’가 그 주인공이다. 인천의 역사를 오늘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관객과 직접 걸으며 공연으로 풀어내는 <터무니있는 연극 × 인천>을 준비 중이다. 거리의 예술가로 명성이 있는 유영봉 연출가가 이끄는 극단 ‘서울피담’도 함께 한다. <보이지 않는 도시>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집, 머무르는 공간, 곧 인천을 다시 바라보게 한다.</p> <p>축제에는 Lab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젊은 예술가의 실험실이라고 보아도 좋다. 유년 시절을 인천에서 보낸 래퍼이자 연출인 채군(본명 채산하)과 기타리스트 이준용이 속해있는 창작집단 ‘hereyouare’의 음악극 <햄릿 보여준다>를 선보일 계획이다.</p>	
--	--	---	--	--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p>2017. 9. 22(금) 야외공연장</p>	<p>금요상설공연 “유랑극단”</p>	<p>예술감독 : 강량원 연출 : 이완희</p> <p>*출연진*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최진영 정순미 김태범 김태훈 황혜원</p> <p>*스텝* 무대 : 박재범 음향 : 김현산 분장 : 손진숙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p>	<p>유랑극단은 설명역을 맡은 해설자가 나와 이 무대에서 연극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올라오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올라온 사람들을 즉석캐스팅을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극이 시작된다.</p> <p>극의 시작은 일제 강점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단장역을 맡은 이세상이 단원들은 모으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단원들이 모여서 연극을 하다가 일본의 횡포에 의해 공연은 막을 내리게 되고 여관에서조차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 유랑을 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던 중 현대극장의 차사장을 만나게 되고,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차사장에게 연극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계약을 맺는다.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으로 호황을 누릴 때 작가인 오소공은 단장에게 개혁적인 연극을 하자고 제안하게 되고, 단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올리게 된다. 하지만 민족의 사상과 독립을 주제로 한 작품은 일본 형사에 의해 중단이 되며 단장은 구속되고 작품의 작가인 오소공은 모진 고문 받고 풀려 나오게 된다. 단장이 빠진 극단은 해체될 위기에 처하지만 부단장을 임시 단장으로 추대하며 극단을 유지해 간다. 그러나 중심을 잃은 극단은 서로간의 갈등으로 다툼이 잦아지고 관객들 비위나 맞추는 삼류 연극에 의존하며 하루하루 끼니 때우기 급급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던 중 농악대의 소리를 듣고 오소공은 민속놀이에 우리의 사상과 민족정신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민속 가면극을 만들게 된다. 일본의 검열을 피한 작품은 대성공을 거둔다. 하지만 고문의 후유증으로 몸이 쇠약해진 오소공은 결국 쓰러지게 되고 단원들의 아리랑 노래를 들으며 죽음을 맞이한다. 마지막으로 설명역은 극에 참여한 사람들의 각자의 소감을 들으며 극은 끝이 난다.</p>	<p>300명</p>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p>2017. 12.9 ~ 12.17 소공연장 (8회)</p>	<p>제75회 정기공연 “해무”</p>	<p>작 : 김민정 연출 : 강량원</p> <p>*출연진* 송예은 김태훈 최진영 김현준 김세경 정순미 이규호 이범우 서창희 권순정</p> <p>*스텝* 무대 : 임일진 조명 : 최보운 음악 : 장영규 음향 : 이복행 안무 : 금배섭 의상 : 강기정</p> <p>분장소품 : 장경숙 연변방언지도 : 김미령 무대감독 : 최성국 사진 : 유재형 홍보디자인 : 장소은 훈련장 : 이완희 단무장 : 김화산 조연출 : 손경희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 객원홍보 : 박선영</p>	<p>영화 <해무>의 원작 연극 길이 보이지 않는 한 해가 계속되었다. 엘리뇨로 수온이 높아져서 물고기가 사라져버렸고 설상가상으로 유조선이 바다를 온통 기름 뿔로 만들어버렸다. 봄, 여름 다 허탕이었다. 이번 가을 출항에서 만회하지 않으면 배가 고리대금업자에게 넘어갈 위기에 처해있다. 전진호 어부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조업을 시작한다. 그러나 번번이 빈 그물만 끌어올리길 몇 차례, 결국 강 선장은 밀입국자 운반신체의를 받아들인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뻔히 알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다.</p> <p>밀입국 조선족들을 태우자마자 해경의 훈련이 시작되어 길이 막히고, 귀향을 기다리는 동안 어부들과 조선족 밀입국자들이 친해진다. 갑판에서 벌어진 조출한 슬자리에서 저마다의 사연이 소개된다. 그때 해경의 불심검문이 시작되고 다급해진 어부들은 밀입국자들을 어창에 숨긴다. 겨우 해경을 따돌리고 어창 문을 열었을 때 숨어있던 밀입국자들이 모두 질식사했다는 것을 발견한다.</p> <p>전진호는 길어가는 해무 속에서 파멸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다.</p> <p>멀미가 날 정도로 생생한 무대 마치 난파된 낡은 어선을 그대로 무대에 옮겨 놓은 듯한 섬세하고 디테일한 무대와 소품. 멀미날 정도로 생생한 바다의 이야기가 눈앞에 펼쳐지면서 어느 순간 진짜 바다 위에 떠있는 듯한 착각을 갖게 된다. 관객들은 뱃사람들의 지독한 고난과의 싸움의 현장을 지켜보면서 삶의 멀미를 함께 느끼고 그들의 처지에 점차 공감하게 된다.</p> <p>해무와 맞장을 뜨는 어부들의 잔내 나는 이야기 바다에서 바람보다 무서운 것은 해무이다. 해무 속에 갇히면 해무가 스스로 풀어주기 전에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 벗어나려고 할수록 해무의 늪에 빠진다. 그런 해무는 삶의 고난과 비슷하다. 이 작품은 해무에 갇힌 어부의 신세를 통해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사람들의 처지를 보여준다.</p>	<p>1,410명</p>

* 정기공연

일시/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계	3건 / 30회			5,795명
2017. 4. 7 ~ 4. 16 소공연장 (10회)	제73회 정기공연 “열하일기만보”	<p>작 : 배삼식 연출 : 강량원</p> <p>*출연진*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김현준 강성숙 최진영 정순미 김문정 김태범 김태훈 송예은 이수정 서창희 황혜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p> <p>*스텝* 무대 : 임일진 조명 : 최보운 음악 : 장영규 음향감독 : 이복행 노래지도 : 안이호 안무 : 금배섭 의상 : 강기정 분장 : 장경숙 헤어협찬 : 윤인자 사진 : 유재형 홍보디자인 : 장소은 드라마터그 : 전강희 무대감독 : 최성국 훈련장 : 이완희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 객원홍보 : 조영민</p>	<p>조선의 천재 박지원이 쓴 여행기</p> <p><열하일기>는 조선이 낳은 천재 박지원이 쓴 여행기이다. 한성에서 압록강을 건너 베이징 그리고 열하까지 총 3000리길 장장 6개월여에 걸친 여행 기록인 <열하일기>는 보통의 여행기와 다르다. 그저 이국적인 풍경을 이방인의 눈으로 기록하는 대신 새로운 삶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전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바꾸는 계기로 여행을 제안하는 진정한 여행자로서의 기록이기 때문이다.</p> <p><열하일기>가 연극 <열하일기만보>로 다시 태어나다.</p> <p><열하일기만보>는 2007년 공연되어 대산문학상, 동아연극상 등 많은 상을 휩쓸었다. 박지원이 여행할 때 타고 다녔던 말(馬)로 환생한다는 기상천외한 내용을 담은 이 연극은 꼼짝달싹 못하고 삶의 굴레에 묶여있는 인생에 대한 혹은 우리 사회에 대한 은유인 ‘열하’에서 달아나는 방법을 경쾌하고 유머러스하게 제안하고 있다.</p> <p>20명의 배우들이 펼치는 서커스와도 같은 연극</p> <p>이 연극은 기상천외한 소동이 끝없이 펼쳐진다. 말(馬)이 갑자기 말(言)을 하고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사막을 줄에 몸을 의지하여 매달릴 땐 춤을 추는 것 같다. 낙타가 염불을 하는가하면 호랑이가 포효한다. 소동을 막으려고 더 큰 소동을 일으킬 때 연극은 마치 버라이어티 쇼처럼 배우들의 연기로 뜨겁다. 배우들이 신체로 표현하는 화려한 스펙타클! 관객은 어느새 박지원이 감탄에 마지않던 도시, 온갖 세상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열하’로 안내될 것이다.</p>	2,537명

일시/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p>2017. 9. 8 ~ 9. 17 소공연장 (12회)</p>	<p>제74회 정기공연 “청소년연극페스티벌”</p>	<p>청소년연극페스티벌</p> <p>예술감독 : 강량원 드라마터그 : 전강희 의상디자인 : 김우성 분장 : 장경숙 홍보디자인 : 장소은 사진 : 유재형 영상 : 심풍식 음향감독 : 이복행 훈련장 : 이완희 단무장 : 김화산 기술감독 : 손경희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p> <p>하프라인 *출연진*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최진영 정순미 김태훈 이수정 서창희 황혜원 권순정 김희원</p> <p>*스텝* 원작 : 김경해 각색 : 홍세영 연출 : 권영호 무대디자인 : 안배잇먼 조명디자인 : 윤해인 조연출 : 배명한 무대감독 : 서가영 음악감독 : 이승호 랩 지도 : 채근 협력청소년 : 김도현(고양예고 2학년)</p> <p>웃음의 고등학교 *출연진* 강주희 김현준 강성숙 김태범 이규호 이신애 (객원출연)신용우</p> <p>*스텝* 원작 : 정진새 연출 : 이연주 무대 : 신승렬 조명 : 남경식 영상·사운드 : 목소 조연출 : 이효진</p>	<p>인천시립극단(예술감독 강량원)이 올 가을 축제를 연다. 문화예술회 관이 남동구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적인 극장 이상의 장소가 되기 위해서, 혹은 인천만의 흔적 을 지닌 장소가 되기 위해서 시민 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고 시작하는 축제다. 극장의 문턱을 낮추는 축제가 되고 자 한다.</p> <p>축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로 ‘청 소년’과 ‘극장 밖’을 꼽았다.</p> <p>청소년극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극장 이라면 한 번쯤은 도전해보는 장르 다.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해나가 고 있는 30,40대 예술가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최근 청소년극은 성장 의 범위를 계급, 젠더 문제로 까지 확장시키며 일반적인 연극이 담아 내지 못하는 세상의 미묘한 차이를 포착해내고 있다.</p> <p>인천시립극단은 극단이 가장 잘 표 현할 수 있는 청소년극을 무대에 올리고자 한다. 정진새 작, 이연주 연출의 <웃음의 고등학교>를 통해 서 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는 청소년 극에 도전한다. 또한 인천 시민인 김경해 작가의 청소년축구소설 <하 프라인>을 통해서 경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한다.</p>	<p>1,848명</p>

		<p>터무니있는연극X인천 친 *출연진* 송예은</p> <p>(객원출연) 고흥진 권근영 서현민 전민호 홍혜진 강한나 구분준 고일도 최명현 배선희 이지수 박주영 이은 홍민기</p> <p>*스텝* <앤드씨어터> 구성·연출 : 전윤환 조연출 : 서현민 <댄스컴퍼니 명> <래빗홀씨어터> 연출 : 윤혜숙 인형제작 : 김다정 <프로젝트 공사중> 연출 : 조민정</p> <p>햄릿 보여준다 *출연진* 서국현</p> <p>(객원출연) 이현배 신윤지 조장호</p> <p>*스텝* 연출·재구성 : 채군 음악감독 : 이준용 작곡·베이스기타연주 : 손형식 무대디자인 : 신승렬 조명디자인 : 남경식 조연출 : 최윤영</p> <p>보이지않는도시 *출연진* 김문정</p> <p>(객원출연) 길덕호 김성환 오선아</p> <p>*스텝* 연출 : 유영봉 움직임연출 : 유진우 드라마터그 : 김지희 김서진 미술 : 이지영 음악 : 이나경 사진·영상 : 김종철</p>	<p>극장 밖 공간이 무대가 되는 공연도 올라간다.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활동 무대를 넓혀나가고 있는 젊은 극단 세 개가 전윤환 연출가를 중심으로 뭉쳤다. ‘앤드씨어터’, ‘댄스컴퍼니 명’, ‘래빗홀씨어터’가 그 주인공이다. 인천의 역사를 오늘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관객과 직접 걸으며 공연으로 풀어내는 <터무니있는 연극 × 인천>을 준비 중이다. 거리의 예술가로 명성이 있는 유영봉 연출가가 이끄는 극단 ‘서울피담’도 함께 한다. <보이지 않는 도시>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집, 머무르는 공간, 곧 인천을 다시 바라보게 한다.</p> <p>축제에는 Lab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젊은 예술가의 실험실이라고 보아도 좋다. 유년 시절을 인천에서 보낸 래퍼이자 연출인 채군(본명 채산하)과 기타리스트 이준용이 속해있는 창작집단 ‘hereyouare’의 음악극 <햄릿 보여준다>를 선보일 계획이다.</p>	
--	--	---	--	--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p>2017. 12.9 ~ 12.17 소공연장 (8회)</p>	<p>제75회 정기공연 “해무”</p>	<p>작 : 김민정 연출 : 강량원</p> <p>*출연진* 송예은 김태훈 최진영 김현준 김세경 정순미 이규호 이범우 서창희 권순정</p> <p>*스텝* 무대 : 임일진 조명 : 최보윤 음악 : 장영규 음향 : 이복형 안무 : 금배섭 의상 : 강기정</p> <p>분장소품 : 장경숙 연변방언지도 : 김미령 무대감독 : 최성국 사진 : 유재형 홍보디자인 : 장소은 훈련장 : 이완희 단무장 : 김화산 조연출 : 손경희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 객원홍보 : 박선영</p>	<p>영화 <해무>의 원작 연극 길이 보이지 않는 한 해가 계속되었다. 엘리뇨로 수온이 높아져서 물고기가 사라져버렸고 설상가상으로 유조선이 바다를 온통 기름 뿔로 만들어버렸다. 봄, 여름 다 허탕이었다. 이번 가을 출항에서 만회하지 않으면 배가 고리대금업자에게 넘어갈 위기에 처해있다. 전진호 어부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조업을 시작한다. 그러나 번번이 빈 그물만 끌어올리길 몇 차례, 결국 강 선장은 밀입국자 운반선 제의를 받아들인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뻔히 알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다. 밀입국 조선족들을 태우자마자 해경의 훈련이 시작되어 길이 막히고, 귀향을 기다리는 동안 어부들과 조선족 밀입국자들이 친해진다. 갑판에서 벌어진 조출한 술자리에서 저마다의 사연이 소개된다. 그때 해경의 불심검문이 시작되고 다급해진 어부들은 밀입국자들을 어창에 숨긴다. 겨우 해경을 따돌리고 어창 문을 열었을 때 숨어있던 밀입국자들이 모두 질식사했다는 것을 발견한다. 전진호는 짚어가는 해무 속에서 파멸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다.</p> <p>멸미가 날 정도로 생생한 무대 마치 난파된 낡은 어선을 그대로 무대에 옮겨 놓은 듯한 섬세하고 디테일한 무대와 소품. 멸미날 정도로 생생한 바다의 이야기가 눈앞에 펼쳐지면서 어느 순간 진짜 바다 위에 떠있는 듯한 착각을 갖게 된다. 관객들은 뱃사람들의 지독한 고난과의 싸움의 현장을 지켜보면서 삶의 멸미를 함께 느끼고 그들의 처지에 점차 공감하게 된다.</p> <p>해무와 맞장을 뜨는 어부들의 잔내 나는 이야기 바다에서 바람보다 무서운 것은 해무이다. 해무 속에 갇히면 해무가 스스로 풀어주기 전에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 벗어나려고 할수록 해무의 늪에 빠진다. 그런 해무는 삶의 고난과 비슷하다. 이 작품은 해무에 갇힌 어부의 신세를 통해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사람들의 처지를 보여준다.</p>	<p>1,410명</p>

※ 기획공연

일시/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계	1건 / 3회			749명
2017. 6.30 ~ 7.2 소공연장 (3회)	기획공연 “배우열전”	<p>예술감독 : 강량원 음악 : 이봉열 분장 : 황지원 음향 : 이복행 조명 : 이나구 미술작품 : 황지원, 용유빈, 송수민 훈련장 : 이완희 단무장 : 김화산 무대감독 : 손경희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p> <p><프라메이드></p> <p>*출연진* 권순정 이규호</p> <p>*스텝* 작 : 송경화 연출 : 김현준</p> <p><10분연극릴레이></p> <p>*출연진* 김문정, 이수정, 서창희, 김희원</p> <p>*스텝* 작 : 박지연<틈>, 배경령<물고기노인>, 한관희<의자> 연출 : 강성숙 연주 : 밴드‘미인’</p>	<p><프라메이드> 2015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희곡 당선작인 이 작품은 작,연출로 활 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송경화씨 작품으로, 꿈과 희망도 없는 현 시 대에 사는,,,,, 소모품으로 전락한 청년들의 모습을 실감나게 보여준 다. 인간성을 마모시키는 현실을 너무 어둡지 않게 위트 있게 그리고 있 다.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를 일깨 우려는 로봇의 끈질긴 시도가 여러 겹의 생각을 낳게 한다. 동시대의 풍경을 압축적인 드라마로 형성한 작품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잃은 이 시대에 인간이 아닌 로봇을 통 해서나마 위안을 받게된다.</p> <p><10분연극릴레이> 10분 연극 릴레이는 3편으로 구성 되어 있다. 첫 작품인 <틈>의 등장 인물은 바퀴 두 마리이다. 나무에 서 살던 야생 바퀴가 어느날 어느 집 창틀에 기어 오르다가 신을 죽 이려는 집주인 여자를 피해 좁은 틈 사이에 몸을 숨긴다. 그때 그곳 에 먼저 숨어있던 집 바퀴와 마주 하게 되고 서로 살기 위해 사력을 다해 몸부림 친다. <의자>는 다양 한 계층의 네 명의 사람이 의자 놀 이를 가볍게 시작한다. 누군가 재 미를 위해 잔인한 벌칙을 제안하고 장난인줄만 알았던 그들의 게임은 점 점 살벌한 현실이 되어가며 그 것에 붙잡히게 된다. <물고기 노인>은 어느 날 노인들 이 물고기로 변해가는 이야기이다. 젊은 사람들은 물고기로 변한 노인</p>	749명

들을 점점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진짜 물고기로 대하게 된다. 부인은 남편에게 물고기를 팔아버리자고 설득하기 시작한다.

<지하철희망역>

희망역 2번 출구에는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간다. 이 연극은 지하철 출구에 카메라를 세우고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포착하고 있다. 그 안에는 노점상 할머니도 있고 셀러리맨도 취업준비생도 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도 있고 노숙자도 열성적으로 신앙을 전도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인다.

좀 더 카메라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저마다의 불행이 모습을 드러낸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와 어떤 희망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현재가 만들어내는 어두운 그들이 지하철 전체를 잠식해있다. 그러나 그 어둠속에서도 사람들은 타인에게 손을 내밀고 따뜻한 관심을 내보인다. 그것이 조금씩 모여져서 결국에는 살만한 세상을 만든다. 여기는 희망역인 것이다.

<지하철희망역>

출연진

이범우 강주희
송예은 이신애

스텝

작 : 김이경
연출·각색 : 서국현

※ 찾아가는 시립극단

일시/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계	22건 / 22회			5,190명
2017. 2. 6(월) 연수구노인복지관	찾아가는 공연 “알,비장전”	예술감독 : 강량원 연출 : 이완희 *출연진* 김세경 최진영 정순미 김희원 황혜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 *스텝* 무대 : 박재범 음향 : 김현산 분장 : 손진숙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	흥겨운 음악과 함께 고수의 사설과 알비장의 거들먹거림으로 극은 시작된다. 신관 사또 제주 부임길에 예방 직위를 맡은 알비장 일행, 강화로 향한다. 무사히 도착한 알비장 일행, 강화 경치를 즐기며 관객과의 너스레가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알비장과 방자의 여색의 유혹에 대한 내기가 시작된다. 고고한 척 하는 알비장과 그를 함정에 빠트리려하는 사또, 방자, 애랑의 어울림은 강화도 화류로 이어진다. 계곡에서 목욕하는 애랑, 혼자 떨어져 무료함 속에 있던 비장. 목욕 장면을 목격하면서 극의 주 흐름은 방자 쪽으로 넘어온다. 알비장은 방자에게 자신의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상하 계급 사회에 대한 엇갈린 해석의 다툼이 벌어지고 결국엔 관객과의 사설로 이어진다. 결국 100냥이란 거금을 방자한테 넘기면서까지 여자를 소개받으려는 비장의 행위에 다시 관객과의 사설로 넘어가며 현 시점에서의 비리와 물질 만능의 사고에 빠져있는 이들을 재 잡고 넘어간다. 방자의 놀음에 온갖 수모를 겪으며 가게 되는 애랑의 집. 하룻밤의 사랑으로 이빨까지 빠주고 방자의 등장으로 궤 속에 갇히게 되는 알비장. 궤 속에서 툭질을 당하는 위기를 겪으며 결국은 바다에 던져질 처지에 놓이게 된다. 바다가 아닌 동헌 마당에 던져진 알비장, 밀리서 들려오는 뱃노래에 자신이 들어 있는 궤가 바다에 던져졌다고 착각하여 목숨이나마 구하려는 알비장의 처절한 뉘우침이 나온다. 주위 사람의 도움으로 궤 밖으로 나와 해엄을 치는 알비장. 바다가 아닌 땅위에서의 개해엄을 보며 박장대소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눈치 채고 참회의 다짐을 한다. 새롭게 태어난 알비장을 축하하며 방자의 노랫가락으로 이 극은 마무리가 된다.	100명
2017. 2. 7(화) 승의종합사회복지관			100명	
2017. 2. 8(수)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			450명	
2017. 2. 9(목)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200명	
2017. 2. 13(월) 인천해역방어사령부			200명	
2017. 2. 14(화) 강화군노인복지관			150명	
2017. 2. 15(수) 인천공항소방서			300명	
2017. 2. 16(목) 제9100부대			300명	

일자/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2017. 6. 12(월) 논현고등학교	찾아가는 공연 “유랑극단”	예술감독 : 강량원 연출 : 이완희 *출연진*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최진영 정순미 김태범 김태훈 황혜원 *스텝* 무대 : 박재범 음향 : 김현산 분장 : 손진숙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	유랑극단은 설명역을 맡은 해설자가 나와 이 무대에서 연극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올라오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올라온 사람들을 즉석캐스팅을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극이 시작된다.	600명
2017. 6. 13(화) 송도효드림복지센터			극의 시작은 일제 강점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단장역을 맡은 이세상이 단원들은 모으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50명
2017. 6. 14(수) 초은고등학교			단원들이 모여서 연극을 하다가 일본의 황포에 의해 공연은 막을 내리게 되고 여관에서조차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 유랑을 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던 중 현대극장의 차사장을 만나게 되고,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차사장에게 연극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계약을 맺는다.	800명
2017. 6. 15(목) 정석항공과학고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으로 호황을 누릴 때 작가인 오소공은 단장에게 개혁적인 연극을 하자고 제안하게 되고, 단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올리게 된다. 하지만 민족의 사상과 독립을 주제로 한 작품은 일본 형사에 의해 중단이 되며 단장은 구속되고 작품의 작가인 오소공은 모진 고문 받고 풀려 나오게 된다.	700명
2017. 6. 19(월) 중구노인복지관			단장이 빠진 극단은 해체될 위기에 처하지만 부단장을 임시 단장으로 추대하며 극단을 유지해 간다.	200명
2017. 6. 20(화) 포병연대			그러나 중심을 잃은 극단은 서로간의 갈등으로 다툼이 잦아지고 관객들 비위나 맞추는 삼류 연극에 의존하며 하루하루 끼니 때우기 급급한 생활을 하게 된다.	400명
2017. 6. 21(수) 북도면사무소			그러던 중 농악대의 소리를 듣고 오소공은 민속놀이에 우리의 사상과 민족정신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민속 가면극을 만들게 된다. 일본의 검열을 피한 작품은 대성공을 거둔다. 하지만 고문의 후유증으로 몸이 쇠약해진 오소공은 결국 쓰러지게 되고 단원들의 아리랑 노래를 들으며 죽음을 맞이한다.	50명
2017. 6. 22(목) YWCA 재가복지센터			마지막으로 설명역은 극에 참여한 사람들의 각자의 소감을 들으며 극은 끝이 난다.	50명
2017. 6. 23(금) 해군223전진기지				100명

일자/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2017. 6. 26(월) 남구노인문화센터	찾아가는 공연 “유랑극단”	<p>예술감독 : 강량원 연출 : 이완희</p> <p>*출연진*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최진영 정순미 김태범 김태훈 황혜원</p> <p>*스텝* 무대 : 박재범 음향 : 김현산 분장 : 손진숙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p>	<p>유랑극단은 설명역을 맡은 해설자가 나와 이 무대에서 연극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올라오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p> <p>올라온 사람들을 즉석캐스팅을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극이 시작된다.</p>	80명
2017. 6. 27(화) 동구노인문화센터			<p>극의 시작은 일제 강점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단장역을 맡은 이세상이 단원들은 모으는 데서부터 시작된다.</p> <p>단원들이 모여서 연극을 하다가 일본의 횡포에 의해 공연은 막을 내리게 되고 여관에서조차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p>	60명
2017. 6. 28(수) 제17보병사단			<p>유랑을 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던 중 현대극장의 차사장을 만나게 되고,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차사장에게 연극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계약을 맺는다.</p> <p>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으로 호황을 누릴 때 작가인 오소공은 단장에게 개혁적인 연극을 하자고 제안하게 되고, 단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올리게 된다.</p>	100명
2017. 6. 29(목) 강화군장애인복지관			<p>하지만 민족의 사상과 독립을 주제로 한 작품은 일본 형사에 의해 중단이 되며 단장은 구속되고 작품의 작가인 오소공은 모진 고문 받고 풀려 나오게 된다.</p> <p>단장이 빠진 극단은 해체될 위기에 처하지만 부단장을 임시 단장으로 추대하며 극단을 유지해 간다.</p>	100명
2017. 6. 30(금) 자월면사무소			<p>그러나 중심을 잃은 극단은 서로간의 갈등으로 다툼이 잦아지고 관객들 비위나 맞추는 삼류 연극에 의존하며 하루하루 끼니 때우기 급급한 생활을 하게 된다.</p> <p>그러던 중 농악대의 소리를 듣고 오소공은 민속놀이에 우리의 사상과 민족정신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민속 가면극을 만들게 된다. 일본의 검열을 피한 작품은 대성공을 거둔다. 하지만 고문의 후유증으로 몸이 쇠약해진 오소공은 결국 쓰러지게 되고 단원들의 아리랑 노래를 들으며 죽음을 맞이한다.</p> <p>마지막으로 설명역은 극에 참여한 사람들의 각자의 소감을 들으며 극은 끝이 난다.</p>	100명

* 해외공연

일시/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계	건 / 회			명

※ 기타공연

일시/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계	4건 / 4회			2,200명
2017. 4. 28(금) 야외공연장	금요상설공연 “알,비장전”	<p>예술감독 : 강량원 연출 : 이완희</p> <p>*출연진* 김세경 최진영 정순미 김희원 황혜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p> <p>*스텝* 무대 : 박재범 음향 : 김현산 분장 : 손진숙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p>	<p>흥겨운 음악과 함께 고수의 시설과 알비장의 거들먹거림으로 극은 시작된다.</p> <p>신관 사또 제주 부임길에 예방 직위를 맡은 알비장 일행, 강화로 향한다.</p> <p>무사히 도착한 알비장 일행, 강화 경치를 즐기며 관객과의 너스레가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알비장과 방자의 여색의 유혹에 대한 내기가 시작된다.</p> <p>고고한 척 하는 알비장과 그를 함정에 빠트리려하는 사또, 방자, 애랑의 어울림은 강화도 화류로 이어진다.</p> <p>계곡에서 목욕하는 애랑, 혼자 떨어져 무료함 속에 있던 비장. 목욕 장면을 목격하면서 극의 주 흐름은 방자 쪽으로 넘어온다.</p> <p>알비장은 방자에게 자신의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상하 계급 사회에 대한 엇갈린 해석의 다툼이 벌어지고 결국엔 관객과의 사설로 이어진다.</p> <p>결국 100냥이란 거금을 방자한테 넘기면서까지 여자를 소개받으려는 비장의 행위에 다시 관객과의 사실로 넘어가며 현 시점에서의 비리와 물질 만능의 사고에 빠져있는 이들을 재 잡고 넘어간다.</p> <p>방자의 놀음에 온갖 수모를 겪으며 가게 되는 애랑의 집.</p> <p>하룻밤의 사랑으로 이빨까지 빼주고 방자의 등장으로 퀘 속에 갇히게 되는 알비장.</p> <p>퀘 속에서 툇질을 당하는 위기를 겪으며 결국은 바다에 던져질 처지에 놓이게 된다.</p> <p>바다가 아닌 동헌 마당에 던져진 알비장, 멀리서 들려오는 뱃노래에 자신이 들어 있는 퀘가 바다에 던져졌다고 착각하여 목숨이나마 구하려는 알비장의 처절한 뉘우침이 나온다.</p> <p>주위 사람의 도움으로 퀘 밖으로 나와 해엄을 치는 알비장.</p> <p>바다가 아닌 땅위에서의 개해엄을 보며 박장대소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눈치 채고 참회의 다짐을 한다.</p> <p>새롭게 태어난 알비장을 축하하며 방자의 노랫가락으로 이 극은 마무리가 된다.</p>	300명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p>2017. 5. 12(금) 동구노인문화센터</p>	<p>초청공연 “알,비장전”</p>	<p>예술감독 : 강량원 연출 : 이완희</p> <p>*출연진* 김세경 최진영 정순미 김희원 황혜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p> <p>*스텝* 무대 : 박재범 음향 : 김현산 분장 : 손진숙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p>	<p>흥겨운 음악과 함께 고수의 사설과 알비장의 거들먹거림으로 극은 시작된다.</p> <p>신관 사또 제주 부임길에 예방 직위를 맡은 알비장 일행, 강화로 향한다.</p> <p>무사히 도착한 알비장 일행, 강화 경치를 즐기며 관객과의 너스레가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알비장과 방자의 여색의 유혹에 대한 내기가 시작된다.</p> <p>고고한 척 하는 알비장과 그를 함정에 빠트리려하는 사또, 방자, 애랑의 어울림은 강화도 화류로 이어진다.</p> <p>계곡에서 목욕하는 애랑, 혼자 떨어져 무료함 속에 있던 비장. 목욕 장면을 목격하면서 극의 주 흐름은 방자 쪽으로 넘어온다.</p> <p>알비장은 방자에게 자신의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상하 계급 사회에 대한 엇갈린 해석의 다툼이 벌어지고 결국엔 관객과의 사설로 이어진다.</p> <p>결국 100냥이란 거금을 방자한테 넘기면서까지 여자를 소개받으려는 비장의 행위에 다시 관객과의 사설로 넘어가며 현 시점에서의 비리와 물질 만능의 사고에 빠져있는 이들을 재 잡고 넘어간다.</p> <p>방자의 놀음에 온갖 수모를 겪으며 가게 되는 애랑의 집.</p> <p>하룻밤의 사랑으로 이빨까지 빼주고 방자의 등장으로 궤 속에 갇히게 되는 알비장.</p> <p>궤 속에서 툭질을 당하는 위기를 겪으며 결국은 바다에 던져질 처지에 놓이게 된다.</p> <p>바다가 아닌 동헌 마당에 던져진 알비장, 멀리서 들려오는 뱃노래에 자신이 들어 있는 궤가 바다에 던져졌다고 착각하여 목숨이나마 구하려는 알비장의 치절한 뉘우침이 나온다.</p> <p>주위 사람의 도움으로 궤 밖으로 나와 해엄을 치는 알비장.</p> <p>바다가 아닌 땅위에서의 개해엄을 보며 박장대소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눈치 채고 참회의 다짐을 한다.</p> <p>새롭게 태어난 알비장을 축하하며 방자의 노랫가락으로 이 극은 마무리가 된다.</p>	<p>600명</p>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p>2017. 7. 19(수) 경주예술의전당</p>	<p>초청공연 “열하일기만보”</p>	<p>작 : 배삼식 연출 : 강량원</p> <p>*출연진*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김현준 강성숙 최진영 정순미 김문정 김태범 김태훈 송예은 이수정 서창희 황혜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p> <p>*스텝* 무대디자인 : 임일진 조명디자인 : 최보운 음악 : 장영규 음향감독 : 이복행 분장디자인 : 장경숙 의상디자인 : 강기정 안무 : 금배섭 사진 : 유재형 홍보디자인 : 장소은 드라마트루기 : 전강희 훈련장 : 이완희 단무장 : 김화산 조연출 : 손경희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 객원홍보 : 박선영</p>	<p>조선의 천재 박지원이 쓴 여행기 <열하일기> <열하일기>는 조선이 낳은 천재 박지원이 쓴 여행기이다. 한성에서 압록강을 건너 베이징 그리고 열하까지 총 3000리길 장장 6개월여에 걸친 여행 기록인 <열하일기>는 보통의 여행기와 다르다. 그저 이국적인 풍경을 이방인의 눈으로 기록하는 대신 새로운 삶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전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바꾸는 계기로 여행을 제안하는 진정한 여행자로서의 기록이기 때문이다.</p> <p><열하일기>가 연극 <열하일기만보>로 다시 태어나다. <열하일기만보>는 2007년 공연되어 대산문학상, 동아연극상 등 많은 상을 휩쓸었다. 박지원이 여행할 때 타고 다녔던 말(馬)로 환생한다는 기상천외한 내용을 담은 이 연극은 꼼짝달싹 못하고 삶의 굴레에 묶여있는 인생에 대한 혹은 우리 사회에 대한 은유인 ‘열하’에서 달아나는 방법을 경쾌하고 유머러스하게 제안하고 있다.</p> <p>20명의 배우들이 펼치는 서커스와도 같은 연극 이 연극은 기상천외한 소동이 끊없이 펼쳐진다. 말(馬)이 갑자기 말(言)을 하고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사막을 줄에 몸을 의지하여 매달릴 땐 춤을 추는 것 같다. 낙타가 염불을 하는가하면 호랑이가 포효한다. 소동을 막으려고 더 큰 소동을 일으킬 때 연극은 마치 버라이어티 쇼처럼 배우들의 연기로 뜨겁다. 배우들이 신체로 표현하는 화려한 스펙타클! 관객은 어느새 박지원이 감탄에 마지않던 도시, 온갖 세상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열하’로 안내될 것이다.</p>	<p>1,000명</p>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p>2017. 9. 22(금) 야외공연장</p>	<p>금요상설공연 “유랑극단”</p>	<p>예술감독 : 강량원 연출 : 이완희</p> <p>*출연진*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최진영 정순미 김태범 김태훈 황혜원</p> <p>*스텝* 무대 : 박재범 음향 : 김현산 분장 : 손진숙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p>	<p>유랑극단은 설명역을 맡은 해설자가 나와 이 무대에서 연극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올라오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올라온 사람들을 즉석캐스팅을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극이 시작된다.</p> <p>극의 시작은 일제 강점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단장역을 맡은 이세상이 단원들은 모으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단원들이 모여서 연극을 하다가 일본의 횡포에 의해 공연은 막을 내리게 되고 여관에서조차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 유랑을 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던 중 현대극장의 차사장을 만나게 되고,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차사장에게 연극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계약을 맺는다.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으로 호황을 누릴 때 작가인 오소공은 단장에게 개혁적인 연극을 하자고 제안하게 되고, 단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올리게 된다. 하지만 민족의 사상과 독립을 주제로 한 작품은 일본 형사에 의해 중단이 되며 단장은 구속되고 작품의 작가인 오소공은 모진 고문 받고 풀려 나오게 된다. 단장이 빠진 극단은 해체될 위기에 처하지만 부단장을 임시 단장으로 추대하며 극단을 유지해 간다. 그러나 중심을 잃은 극단은 서로간의 갈등으로 다툼이 잦아지고 관객들 비위나 맞추는 삼류 연극에 의존하며 하루하루 끼니 때우기 급급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던 중 농악대의 소리를 듣고 오소공은 민속놀이에 우리의 사상과 민족정신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민속 가면극을 만들게 된다. 일본의 검열을 피한 작품은 대성공을 거둔다. 하지만 고문의 후유증으로 몸이 쇠약해진 오소공은 결국 쓰러지게 되고 단원들의 아리랑 노래를 들으며 죽음을 맞이한다. 마지막으로 설명역은 극에 참여한 사람들의 각자의 소감을 들으며 극은 끝이 난다.</p>	<p>300명</p>

시립극단 단원명단

예술감독 : 강량원

훈 련 장 : 이완희

단 무 장 : 김화산

조 연 출 : 손경희

사 무 : 이옥희, 이돈형

수 석 : 서국현, 차광영, 정순미

제1차석 : 강주희, 강성숙, 김태훈

제2차석 : 이범우, 심영민, 송예은

상임단원 : 김세경, 김현준, 최진영, 김문정, 이수정, 서창희,
김희원, 황혜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

※ 2017년 12월 31일 기준